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금상 경상남도 밀양시 죽월마을

은상 충청남도 보령시 은골마을

동상 강원도 정선군 의림길마을

입선 전라북도 완주군 안덕마을

입선 전라남도 나주시 상남마을



아름다운 농촌, 살기 좋은 달빛 마을 경상남도 밀양시 죽월마을

죽월마을은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3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마을 주민 모두가 실천해서 더 나은 농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죽월3길 10

 인구 221명

 가구 112가구

 마을 자원
1,000년 넘는 향나무, 600년 된 느티나무, 달빛공원, 주말농장,
인공 폭포, 물레방아

 행복마을 성공 비법
적극적 참여로 운영되는 마을공동체
실천 과제 설정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한마당 잔치를 통한 마을 화합



자발적 주민 참여로 뚝뚝 뭉친 마을공동체

죽월마을은 100여 가구가 웅기종기 모여 삽니다. '땀 흘리는 비로 유명한 표충비가 있는 사명대사 생가지에서 직선거리로 4km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수령 1,000년이 넘는 향나무가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2000년대 초 석산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마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흥흥해진 민심은 마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고, 환경 파괴라는 악순환을 불러왔습니다.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낀 건 그 때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공동 급식, 공동 품앗이,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마을 내 휴경지 1,660㎡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말농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기업은 부족한 농촌 일손 돕기와 마을 발전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울산대학교, 동서대학교와 주민이 함께 마을 경관 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마을공동체를 확대한 개념입니다.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30개 실천 과제

죽월마을은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3대 핵심 과제(행복한 마을공동체, 아름다운 농촌 환경, 청정·안전 농산물)를 선정했습니다. 3대 핵심 과제는 각각 10가지 실천 과제로 세분화해 총 30개 실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공동 급식과 공동 품앗이, 도농 교류 활성화가 행복한 마을공



동체를 위한 중심 사업이라면, 마을 입구 주변 가꾸기와 느티나무·향나무 보존하기, 버려진 영농 자재와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위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쉼터와 물레방아, 체육 시설을 갖춘 달빛공원도 그렇게 조성했습니다.

주민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 청정·안전 농산물 생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추 하우스에서 버려진 비닐을 100% 수거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친환경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고추 농가에서 수거한 폐비닐 판매 수익과 마을 소유 공터의 창고 임대료는 모두 마을 가꾸기 사업에 사용합니다. 마을 공동 방역, 귀농인을 위한 농사 노하우 전수 등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축제와 협업을 통해 이룬 마을 화합

‘죽월 고향인의 모임’은 매년 7월에 출향민을 초대하는 마을 화합 한 마당 잔치입니다. 거창한 행사는 아니지만, 고향을 떠나 타지에 살던 이들과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출향민 외에 마을에 도움을 준 도농 교류 기업 관계자와 대학생도 초대합니다. ‘죽월 고향인의 모임’을 시작한 뒤 많은 출향민이 마을로 돌아오고 있어 고마울 따름입니다.



죽월마을이 이 모임을 운영하는 것은 공동체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면 아름다운 마을 조성도, 마을 공동 소득 증대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죽월마을 주민이 함께 하면 마을 도랑 쓰레기를 제거하고 마을 진입로 가드레일을 꾸미는 일 정도는 가뿐합니다.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달빛공원에 모여 신나게 노래 부르며 스트레스를 푸는 야외노래교실도 운영합니다. 죽월마을이 그려가는 작지만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에는 주민의 화합이 있습니다.

마을성과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활동 실적

청년회

회원 33명
2017년 주 1회 / 2018년 주 1회

노인회

회원 50명
2017년 주 1회 / 2018년 주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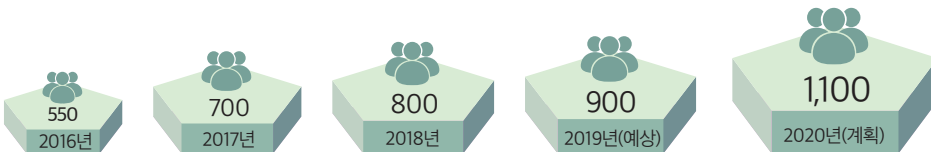
부녀회

회원 35명
2017년 12회 / 2018년 12회

작목회

회원 60명
2017년 2회 / 2018년 2회

방문객 수 (단위 : 명)



정부 지원 실적

2019년
행복마을 꽃동산
〈밀양시〉
500만원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우리 동네 벽화 정말 멋져요!”

우리 동네에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그려준 벽화가 멋져요. 예전에는 허름한 벽이었는데, 예쁜 그림을 그려놓으니 아주 예뻐요. 집집마다 걸린 문패도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그려준 거예요.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화 속 주인공처럼 멋지게 그려서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나요.

(무안초등학교 1학년, 김현정)



“행복 나눔, 정이 넘치는 농촌”

주민이 누린 행복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골목골목 예쁜 벽화도 그렇고, 우리마을의 자랑인 청양고추도 더 많은 분이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인공 폭포 앞 공터에 아담한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정이 넘치는 시골에서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마을 대표, 이상호)

여행 추천 코스

호국의 얼이 깃든 밀양 역사 여행

1일 차

사명대사생가지 → 6.5km, 승용차 13분 → 표충비 → 4.4km, 11분 → 죽월마을

2일 차

영남루 → 24.3km, 승용차 39분 → 표충사

마을특산품
청양고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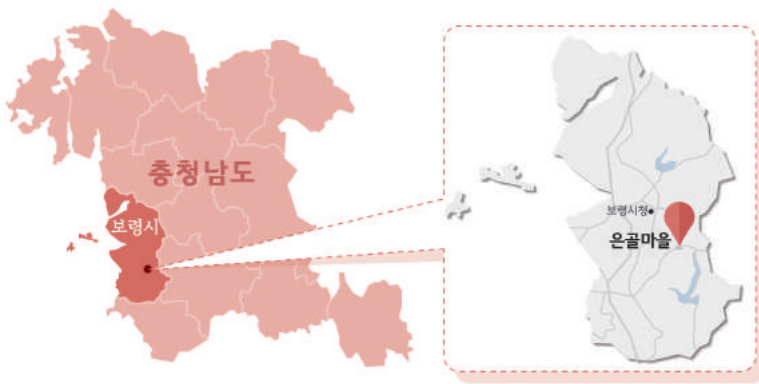
죽월마을은 주민이 대부분 청도천 맑은 물로 고추 농사를 짓는다. 전국 고추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며, 특히 ‘청양고추 1번지’로 불린다.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과 알싸한 맛이 일품이다.

☎ 055-359-6774



주민이 보물인 행복 박물관 충청남도 보령시 은골마을

은골마을은 마을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마을 기업과 상생을 통해
구성원이 모두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만수로 901

 인구 207명

 가구 101가구

 마을 자원
개화천, 하개천, 대나무 화석, 남포오석, 대동계, 산제, 성황제,
보령시모란공원, 오석고을박물관 등

 행복마을 성공 비법
주민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마을 조성
마을 역사를 지키며 찾아온 행복마을
지역 기업과 상생 발전으로 화합 도모



주민 모두가 실천하는 '우리마을 청소의 날'

은골마을이 자리한 성주면은 과거 보령시 석탄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폐광되면서 마을은 활기를 잃었습니다. 가구 수가 급격히 줄었고, 환경은 피폐해졌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던 주민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주민이 거리로 나와, 내 집 치우듯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마을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켰고, 실천은 늘어갔습니다. '우리마을 청소의 날'을 지정해 주민 모두가 마을 대청소를 했습니다. 삼거리 대로변에서 현수막을 들고 안전과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캠페인을 펼치고, 꽃을 심고 산책로를 정비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도 동참했습니다. 점차 깨끗해지는 마을을 보며 주민은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을을 1,000년 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마을 역사 지키기와 기부 활동으로 찾아낸 마을 행복

2018년 3월, 마을회관 2층에 오석고을박물관을 열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은 만큼 마을 역사도 지켜야 한다고 다짐한 결과입니다. ‘보령 마을단위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받은 지원금에 마을 기금을 더해 공간을 꾸렸습니다. 박물관은 주민이 가지고 있던 옛 물건을 기증 받아 채웠습니다. 전통 농기구와 집기, 고서적, 옛날 사진, 문고리에 걸려 있던 자물쇠와 열쇠, 예전 술과 음료수 병까지 오랜 시간 묵혀 있던 물건이 빛을 본 것입니다.



은골마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을의 과거와 오늘이 담긴 마을지를 편찬했습니다. 2018년 《은골마을 오석돌장이 이야기》 1편을 시작으로 2019년 2편을 제작 중입니다. 마을이 깨끗해지고 주민의 삶이 보물이 되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여러 사업을 통해 마을 민요단과 가야금 동아리를 만들고, 서로 챙기는 마음이 생겨 재능 기부 동아리도 구성했습니다. 민요단과 가야금, 오석고을동아리로 지역 축제 무대에서 공연도 합니다. 요즘 마을 현황판에는 재능 기부 일정이 넘칩니다.





마을의 발전을 위한 주민과 기업의 상생 활동

은골마을은 마을 경관 개선과 박물관 조성, 동아리 활동 등으로 함께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자리한 기업과 함께 성장해야 마을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은 기업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힘을 보태기도 합니다. 기업 역시 마을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 박물관 건립에 앞장서고 마을지 편찬에도 큰 힘을 보탬 뿐 아니라 민속음악제와 공원 영화제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주최해 주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주민과 기업은 어느새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술밥 식구’라는 말처럼, 주민과 마을 기업은 식구처럼 한마음으로 아름다운 은골마을을 만들어 갑니다. 내 집 앞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서 시작한 작은 활동이 어느새 마을의 철학과 가치를 바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을성과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활동 실적

깨끗한 마을 가꾸기 추진위원회

회원 주민 전체
2018~2019년 월 1회

대동회

회원 31명
2017~2018년 월 2회

노인회

회원 26명
2017~2018년(연 2회)

오석고을 동아리

회원 100명
2017년 6월 / 2017년 9월

정부 지원 실적

2017년
희망마을선행사업
〈보령시〉
3,000만원

2017년
마을가꾸기소액사업
〈보령시〉
3,500만원

2018년
마을단위문화예술창작
공간조성사업
〈보령시〉
2,650만원

2018년
창조적마을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
5억원

2018년
문화예술공동체학교
〈보령시〉
547만원

2019년
국립기억의숲
〈산림청〉
60억 원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마을이 깨끗해지고 박물관이 생겼어요!”

몇 년 전에는 학교 다닐 때 거리에 쓰레기가 많고 냄새도 났는데, 이제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아요. 지난해 마을 박물관도 열었어요. 처음엔 그냥 옛날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읽고 누가 어디에 쓰던 물건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자랐을 때 마을이 얼마나 발전해 있을지 기대돼요.

(미산초등학교 5학년, 정유민)



“지금 은골마을은 꿈을 꾼니다”

주민과 마을 가꾸기 활동을 시작할 때, “2020년에 다 같이 손잡고 하와이 갑시다!”라고 약속했어요. 어르신들이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모두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약속한 꿈의 의자도 만들고요. 1,000년 마을을 위한 인재를 키우고 주민이 매일 행복해지는 것이 오늘과 내일의 꿈이에요.

(마을 대표, 권혁영)



여행 추천 코스

구석구석 마을 여행

1일 차

대천해수욕장 → 0.79km, 도보 12분 → 보령머드박물관 → 15.64km, 승용차 27분 → 성주산자연휴양림

2일 차

보령석탄박물관 → 2.48km, 승용차 6분 → 개화예술공원 → 7.58km, 승용차 12분 → 오석고을박물관 → 2.34km, 승용차 4분 → 보령시모란공원

오석고을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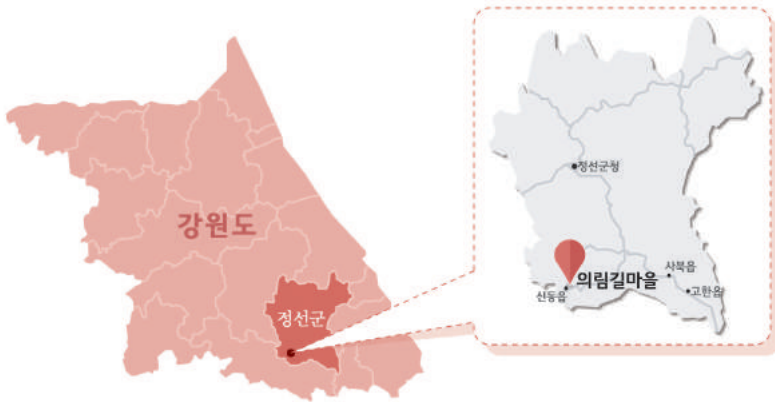
마을회관 2층에 자리하며, 생활용품과 유물, 고서 등 500여 점을 전시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민이 순번을 정해 박물관 지킴이 활동을 한다.

☎ 041-933-5184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는 미래 강원도 정선군 의림길마을

의림길마을은 100년이 흐른 뒤에도 문화와 감성이 숨 쉬는 마을,
아이들이 대를 이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고자 마을 발전 5원칙과 5가지 마을 회의를
정해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309

 인구 176명

 가구 80가구

 마을 자원

의림천, 의림정, 하이원가는꽃길, 마을공동체정원, 산골샘터길,
신동해봄파크 등

 행복마을 성공 비법

마을 발전 5원칙에 따른 마을 발전 계획
5가지 마을 회의 운영과 회의 결과 공유를 통해 아름다운 마을 완성
마을 경관 개선과 교육 공동체 프로젝트를 통한 마을 발전



마을 발전을 위한 5가지 원칙 마련

의림길마을은 마을 앞으로 의림천이 흐르고, 예미산이 굽어보는 곳입니다. 석탄 산업이 중흥하던 시절에는 신동읍의 중심지로 뿔뿔했지만, 석탄 산업이 쇠퇴하며 폐가가 생기고 의림천도 옛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마을을 지키고 가꾸려는 주민의 의지마저 퇴색한 건 아닙니다.

의림길마을 주민은 지난 2016년 마을을 다시 가꾸고 살려보자며 의기투합해, 실현 가능한 일을 중심으로 5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자구 노력입니다. 마을 주민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외부 지원이 있어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마을 의사 결정 구조 정리입니다. 모든 의사 결정을 이중, 삼중으로 체계화해 소통은 원활하고 진행은 신속하게 했습니다. 셋째, 인근 마을과 공조입니다. 의림길마을은 이웃한 마을과 의림천을 따라 이어집니다. 의림길마을이 앞장서서 추진하되, 의림천 주변의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넷째, 진입로 주변, 마을 안길, 의림천으로 나뉜 마을 경관 개선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장소마다 특징을 잘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세세히 남겨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5가지 마을 회의 중심으로 마을의 미래를 준비

마을 주민은 마을 발전 5원칙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마을 회의도 마을 발전 추진위원회의, 노인회의, 부녀회의, 마을 기금 관리위원회의, 마을 교육 공동체회의로 재편했습니다. 5가지 마을 회의 중심에는 마을의 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마을 발전 추진위원회의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은 노인회의를 통해서 마을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마을 발전 추진위원회의를 후원해 마을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부녀회의에서는 마을 안살림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마을 기금 관리위원회의에서는 마을 사업비와 예산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회의는 마을 교육 공동체회의입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회의는 의림길마을의 미래를 준비하는 회의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이 성장하면 도시로 떠날 수 있지만 언젠가 마을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 어린 시절부터 마을 일에 함께하고, 부모들이 마을을 어떻게 가꿔가는지 알려주고자 합니다.





마을 발전의 핵심 사업, 마을 경관 개선과 교육 공동체 프로젝트

의림길마을이 마을 발전 5원칙과 5가지 마을 회의를 기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마을 경관 개선과 교육 공동체입니다. 마을생활환경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4년째 실행하는 마을 발전의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마을 진입로인 국도 38호선 변에 장미를 심어 꽃길을 조성하고, 마을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폐가가 있던 자리에는 코스모스 꽃밭을 만들고, 의림천 뚝에는 백일홍을 심었으며 난간에는 페트병으로 만든 바람개비를 달아 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가꿨습니다. 이 과정에 주민 모두가 참여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협력해 ‘온마을학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지역 교육 문제를 의논하고,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일환으로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이 마을 가꾸기에 참여해 골목 벽화를 그리고, 빈터에 꽃을 심고, 집집마다 예쁜 문패 우체통을 만들었습니다. 설날에는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윷놀이를 하고, 초등학교 운동회 날에는 마을 한마당 잔치를 펼칩니다. 생활환경이 아름답고 아이들의 미래가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성과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활동 실적

국도 38호선변 환경 정비와 정화 활동

2016년 3회 / 2017년 3회 /
2018년 1회 / 2019년 1회

마을 정원 및 마을 안길 환경 정비와 정화 활동

2016년 5회 / 2017년 5회 /
2018년 9회 / 2019년 3회

의림천 둔치 환경 정비와 정화 활동

2016년 6회 / 2017년 4회 /
2018년 3회 / 2019년 4회

정부 지원 실적

2017년
소액지원사업
〈정선군〉
650만원

2017년
기업형새농촌신규도약마을선정
〈강원도〉
3억원

2019년
온마을학교
〈강원도교육청〉
500만원

2019년
녹색쌈지숲조성사업
〈산림청〉
1,000만원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소통하며 서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마을은 5가지 회의를 중심으로 주민과 원활하게 소통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밥을 나누는 일도 많아서 친밀감이 생기고, 서로 이해할 시간이 늘어 이제는 소통이 편합니다.

(마을 대표, 엄주진)



“우리가 예쁘게 만든 마을이에요”

우리마을은 자연환경이 참 좋아요. 산과 하천이 있고, 특히 의림천이 깨끗해요. 어른들하고 마을에 벽화를 그리고 화단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마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함께 했다는 게 무척 자랑스러워요.

(예미초등학교 5학년, 안효원·한원정)



여행 추천 코스

의림길마을 시간 탐험 여행

1일 차

의림길마을 신동해봄파크 → 0.25km, 도보 5분 → 의림천 → 7.39km, 승용차 17분 → 추억의박물관

2일 차

의림길마을 → 7.69km, 승용차 18분 → 함백역 → 5.15km, 승용차 10분 → 타임캡슐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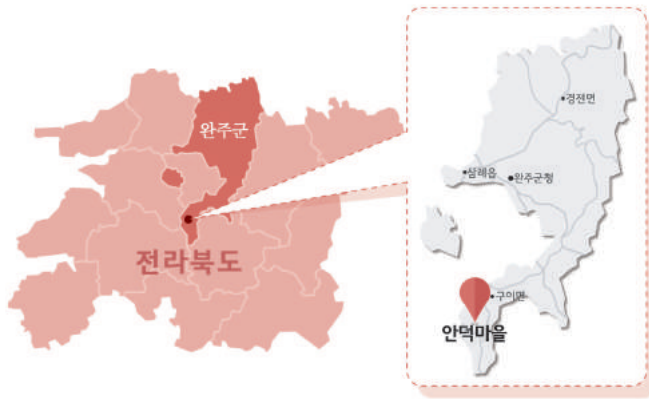
신동해봄파크
(마을 공유 공간)

지난 1969년 마을회관으로 건립해서 파출소, 동문화관, 마을 창고 등으로 쓰이던 공간을 개조해 산뜻하게 꾸몄다. 주민이 모여 회의하고, 여행자가 차도 마시고, 아이들이 체험하는 다목적 공유 공간으로 쓰인다.



밭길이 머무는 자연속 쉼터 전라북도 완주군 안덕마을

안덕마을은 지난 2009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이후 큰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안주하지 않고 10년, 20년 뒤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농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치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장파길 72

 인구 310명

 가구 150가구

 마을 자원
멜라초, 양하 등 특화작물 재배, 황토한증막, 황토펜션, 모악산등산로

 행복마을 성공 비법
주민 주도형 영농조합법인 설립
분업화된 활동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
환경보호 활동이 축제와 행사로 연결



영농조합법인 중심으로 선진 마을 만들기 성공

안덕은 '안 터'라는 뜻으로, 안덕마을은 이름처럼 산골 깊숙이 자리한 마을입니다. 굳이 청정이나 힐링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은 도시 생활에서 쌓인 근심을 금세 사라지게 합니다.

안덕마을은 안덕리에 있는 네 마을(미치, 장파, 원안덕, 신기)을 아울러 건강힐링체험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완주군 최초로 주민 주도형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습니다. 2009년에 설립했으니 올해가 꼭 10년째로, 주민 약 8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만 해도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삶의 활력소 저하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부도 직전의 한증막을 임대해 주민이 운영하는 한증막으로 출발했는데, 방송을 타면서 힐링 마을로 소문이 났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참여자는 53명에서 어느새 76명이 됐고, 출자금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안덕마을로 선진 농촌 사례를 견학하러 올 만큼 성장했습니다.



땀방울로 일군 아름다운 마을 경관

안덕마을 입구에 서면 황토편선이 차례로 반깁니다. 한옥 형태로 지어 산세와 어우러집니다. 황토편선 밖으로 쌓은 돌담이 방문객을 정겹게 맞이합니다. 주민이 마을 경관을 가꾸기 위해 하천을 정비하며 널브러진 돌을 하나둘 모아 정성스레 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옛 금광동굴과 산책로, 한의원 등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요즘도 해마다 하천을 정비하며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활동은 안덕마을회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안덕마을회는 4개 마을 부녀회와 노인회, 청년회가 주축을 이루고, 다시 사업별로 문화복지팀, 경관생태팀, 소득사업팀, 안덕봉사클럽으로 분업화 체계를 갖췄습니다. 상호 보완적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을 통해 주민역량강화에 힘씁니다. 여기에 성공한 경험이 더해지니 주민이 마을 일에 더욱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은 미래의 푸른 숲을 기대하며 심은 편백 1,000여 그루처럼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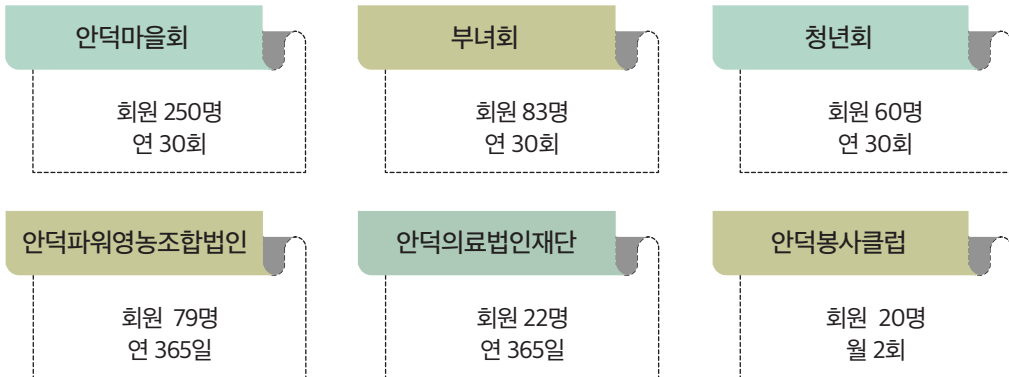


마을 환경보호 활동이 도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발전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마을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조직한 안덕봉사클럽이 대표적입니다. 안덕봉사클럽은 주민의 걷기 운동 동호회로, 클럽회원들은 도시민과 함께 산책을 하고 환경보호 활동도 합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는 '모악산 마실길 걷기 운동'이라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성격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덕봉사클럽 회원과 도시민이 어울려 걸으며 정을 나누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행사입니다. 걷기 동호회가 어느새 축제를 이끌고, 캠페인을 주도하는 모임으로 성장한 셈입니다. 마을 주민은 주 1회 분리수거, 봄에 꽃길 조성, 농번기 이웃 일손 돕기 등 많은 일을 함께 처리합니다. 이런 노력은 2012년 대한민국 마을만들기 대상 국무총리상, 2018년 농촌 체험휴양마을을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두 해 반짝하는 마을은 많지만, 안덕마을처럼 10년 넘게 꾸준히 성장하는 마을은 흔치 않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주민 교육을 추진하고, 해마다 선진지 견학을 다니며 마을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주민은 안주하지 않고 10년, 20년 뒤 더 나은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마을입니다.

마을성과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활동 실적



방문객 수 (단위 : 명)



정부 지원 실적

2017~2019년
창조적마을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
10억원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우리마을에는 10년을 쌓은 신뢰가 있습니다”

마을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든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주민은 긴 시간을 같이 겪어왔습니다. 그동안 갈등은 해소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지금은 가족만큼 신뢰가 단단합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도전에 나설 때마다 주민이 단결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마을 일에 모든 주민이 애정과 관심이 많습니다.

(마을 대표, 유영배)



“안덕 자연에서 힐링하고 가세요”

우리마을은 건강힐링체험마을이라는 이름처럼 쉬러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 번 오신 분이 두 번, 세 번 다시 방문하시고요.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조용해서 누구나 내 집처럼 쉴 수 있습니다. 도시는 시끄럽고 각박한데, 이곳은 새소리와 벌레 소리가 들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안덕마을 사무장, 박옥희)



여행 추천 코스

안덕마을 힐링 여행

1일 차

안덕마을 → 1.0km, 도보 30분 → 모악산 마실길(일부) 걷기 → 1.0km, 도보 30분 → 황토한증막 체험 → 0.3km, 도보 5분 → 안덕마을 황토펀션(숙박)

2일 차

안덕마을을 황토펀션 → 29.16km, 승용차 30분 → 공기마을 편백 숲 → 14.22km, 승용차 20분 →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황토한증막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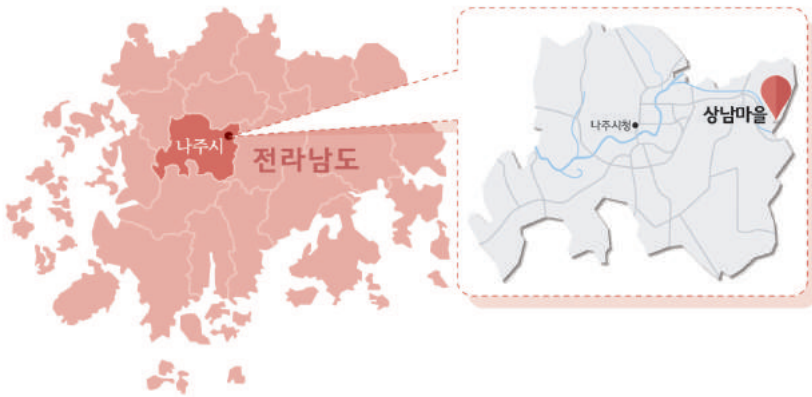
안덕마을에는 황토한증막이 있다. 황토펀션에 머물며 한증막을 즐기거나, 한증막만 이용할 수도 있다. 한증막 옆에 있는 옛 금광동굴 내부는 한여름에도 시원해 한증막을 이용하고 나서 땀을 식히기에 좋다.

☎ 063-227-1000 🌐 www.poweranduk.com



자연과 주민이 더불어 나누는 삶 전라남도 나주시 상남마을

상남마을은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역량강화에 힘쓰고,
마을 자연과 역사를 조화롭고 아름답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상남길 6

 인구 104명

 가구 63가구

 마을 자원

왕건이탐낸쌀, 당산나무 정자, 십리송길, 지석천, 의적비, 열녀비, 우물,
쌈지공원, 상남제, 안골산, 중봉제 등

 행복마을 성공 비법

다양한 마을공동체 운영
청정 자연환경을 지키며 마을 가꾸기 사업 진행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위한 잔치 개최



다양한 마을공동체 중심의 주민 주도 사업 기획

상남마을은 파평 윤씨 집성촌입니다. 마을 뒤쪽에 나지막한 안골산이 자리하고, 마을 앞으로 영산강 줄기인 지석천이 흐릅니다. 3년 전, 마을 대표가 마을 내 조직 개편에 힘쓰면서 마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동네 계의 명칭을 상남마을회로 바꾸고, 구체적인 회칙도 정했습니다. 남평농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농회와 젊은 주민 위주인 청년회의 역할도 확실히 구분했습니다.



특히 역사가 50년 정도 되는 부녀회는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지금은 건강 체조 수업, 오카리나 배우기, 꽃차 만들기 등 문화 예술 프로그램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꽃차 만들기는 상남마을을 꽃동네로 꾸미자는 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회원들은 꽃차 만들기 강사 자격증을 획득했고, 향후 상남마을 꽃차를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마을 리더의 체계적인 조직 개편 활동에 발맞춰 주민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청정 자연과 공존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

상남마을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 집중했습니다. 가꿔지지 않은 천변 독길을 산책로(십리송길)로 조성하고,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길을 넓혔으며, 마을로 이어지는 다리를 설치했습니다. 정자와 의자가 있는 쉼터까지 마련하자, 십리송길은 마을 사람들의 산책 코스가 됐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입구 논 한가운데 소나무 세 그루가 방치돼 있었는데, 그 주변에 정자를 세우고 잔디를 깔고 철쭉을 심어 썸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주민은 소나무가 방치됐을 때 한 그루가 죽어가고 있었지만, 공원 조성 후 다시 살아났다고 자랑합니다. 진입로와 공터에 철쭉을 심어 꽃길을 만들고, 마을을 통과하는 수로와 100년 된 우물 주변을 정리하고, 안골산 등산로를 정비해 마을 안팎을 골고루 꾸몄습니다.





함께 잔치하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상남마을에서는 때마다 잔치가 열리는데, 백중(음력 7월 15일)이 대표 잔치날입니다. 백중 잔치는 마을 가꾸기 활동으로 시작합니다. 주민은 농촌의 전통 노동 협동 방식인 율력으로 마을 대청소를 진행합니다. 구석구석 쌓인 묵은 때를 함께 지우며 마을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자고 결의하는 시간입니다. 청소를 마치고 마을회관으로 돌아와 부녀회가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나누며 마을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밖에도 마을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면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일합니다. 마을회관에서는 공동 급식, 공동 텃밭, 공동 김장 등 함께하고 나누는 시간이 연중 이어집니다.

마을의 꿈은 소박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민 모두 함께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을에 귀농귀촌귀향 가구가 늘어 주민 200여 명이 모여 사는 날을 기대하며,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성과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활동 실적

마을회관 앞 나무 심기

2018년 4월

상남마을 보행 안전 경로석 설치

2018년 8~12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철쭉 2,000주 식재

2018년 12월

마을 정자 주변 도로 이팝나무 식재

2019년 1월

정부 지원 실적

2016~2017
십리송길복원사업
〈나주시〉
2,100만원

2018년
소규모마을가꾸기
〈나주시〉
500만원

2019년
시민참여형꽃길조성
〈나주세무서〉
500만원

2019년
녹색쌈지숲조성사업
〈나주시〉
1,000만원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동네 할머니들하고 오카리나를 배워요!”

상남마을로 온 뒤에는 동생하고 동네에서 뛰어다니며 놀아요. 강아지랑 고양이도 같이 살고요. 동네에서 잠자리나 다람쥐를 자주 만나고, 밤에 반딧불이도 날아다녀요. 요즘은 동네 할머니들하고 오카리나를 배워요. 수업에 가면 할머니들이 사탕이나 과자도 주시고, 예쁘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좋아요.

(남평초등학교 1학년, 이서현)



“살면 살수록 행복이 넘치는 마을이에요”

상남마을에 산 지 벌써 15년이 돼갑니다. 막연히 시골 생활을 꿈꾸다가 전라도 지역에 있는 여러 마을을 돌았는데, 지인 소개로 상남마을에 와서 첫눈에 반했죠. 산과 물이 있고 조용한 마을이 좋더라고요. 마을 가꾸기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주민과 어울렸어요. 마을에 활기차고 즐거운 일이 점점 더 많아져서 행복합니다.

(부녀회 회원, 양연례)



여행 추천 코스

맛과 멋이 있는 천년 여행

1일 차

나주영산테마파크 → 36.45km, 승용차 44분 → 상남마을(지석천 산책, 안골산 등산) → 20.36km, 승용차 32분 → 나주 영산포 흥어거리

2일 차

나주읍성 → 0.54km, 도보 2분 → 나주 곰탕거리 → 0.1km, 도보 1분 → 나주 금성관

상남마을 산책과
꽃차 즐기기

상남마을은 조용하고 아늑해 가벼운 산책이나 트레킹을 즐기기에 좋다. 마을 진입로와 쌈지공원, 등산로, 지석천 십리송길 등을 걷다가 마을회관에 들르면 주민이 만든 꽃차를 맛볼 수 있다. 꽃차 상품화 사업이 시작되면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 061-331-7111

함께 만든 행복한 우리마을, 열기 가득한 현장 속으로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콘테스트 스케치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가 2019년 8월 28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전국 2,797개 마을에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0개 마을이 최종 경합을 벌였습니다.





축하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 후, 20개 마을의 기수가 입장했습니다. 힘차게 깃발을 흔들며 무대에 오른 각 마을 기수의 모습에 장내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본선 무대는 접전이었습니다. 마을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주민의 모습에선 자부심을 넘어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전문가 못지않은 침착함과 노련함은 그간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각 마을의 퍼포먼스는 예술 작품을 방불케 했습니다. 대나무를 이용해 마을의 흥망성쇠를 감각 있게 연출하고, 오카리나의 잔잔한 선율로 심사위원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영화 <영웅본색>을 연상시키는 무대를 선보인 마을, 아이들의 흠잡을 데 없는 군무를 보여준 마을, 엿을 파는 주민의 퍼포먼스가 인상적인 마을까지 보석 같은 공연이 장내 모든 이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응원 차 동행한 마을 주민의 복장도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해바라기 모양 머리띠를 착용하거나 반짝이 의상을 입은 어르신들의 모습이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긴 가발을 쓰고 무대 순서를 기다리는 마을 이장의 모습은 '어떤 공연이 펼쳐질까' 기대하게 했습니다.

경연이 모두 끝나고 축하와 격려사, 총평을 거쳐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은 이제 옛말인 듯합니다. 더운 날씨에 가득 모인 이들로 행사장은 후끈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호성을 올리거나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수상 여부에 관계 없이 마을 주민이 서로 축하하고 보듬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는 이도, 참여한 이도 그동안 고생하고 노력한 과정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소득·체험 금상 경남 거창군 빙기실마을

“포기를 모르는 도전 정신으로 이룬 값진 결과”

- 마을 대표, 박주영

2016년에는 진행하던 마을사업이 흐지부지되어 주민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지만 2017년에 다시 단합해서 마을 재건에 도전했습니다. 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분위기도 좋아졌고, 콘테스트에 도전해보자는 의견이 많아 이렇게 나와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을이 어려움에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것이 수상보다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상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 인정 받기 위해, 상을 받기 위해 마을 주민이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 묵묵히 우리마을을 위해 노력하니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준 사실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마을 사업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지금은 더 적극적입니다.

문화·복지 금상 경북 예천군 풍정마을

“함께 행복하자는 주민의 마음이 만든 결과”

- 마을 대표, 이상배

과거부터 현재까지 함께 가꾸는 마을, 고독사나 우울증이 없는 마을은 이웃 간 사랑방 역할을 하는 <풍정라디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마을 주민의 진솔한 이야기가 라디오를 통해 울려 퍼질 때, 모두 귀 기울여 서로 도움을 주고 보듬었습니다. 그런 진심 어린 이야기가 콘테스트에서도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수상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마을 어르신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행사 당일에 91세 어르신이가 무대에 올랐는데, 그 활기찬 모습에 주민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습하는 동안 힘든 점도 있었지만, 상을 받고 더 활기 있는 주민을 보니 그간 힘든 기억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주민도 고생한 시간을 즐거운 추억으로 이야기하고,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경관·환경 금상 경북 군위군 화산마을

“주민 화합과 협동의 계기 마련”

- 마을 대표, 이종은

우수한 다른 마을이 많아서 콘테스트에 참여한다는 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도 ‘경험이라 생각하고 해보자’는 마음으로 부담을 덜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께 고맙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연습해야 하는 상황인데 잘 따라주셨어요. 어르신들이 격려해준 덕분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도 동참했습니다. 이 행사로 주민이 하나 되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수상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주민이 뭉쳐서 활동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일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또 나가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을 방문객도 늘고 있습니다. 조금은 버거울 정도로 바쁜 나날이지만, 한편으로 축제 같은 날이 이어지니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금상 경남 밀양시 죽월마을

“마을의 단합과 활력 증진을 위해 노력”

- 마을 대표, 이상호

오랫동안 마을 주민 모두가 수고하며 준비했습니다. 참여할 때 ‘상을 꼭 받아야지’라는 생각보다 콘테스트를 계기로 단합이 잘되고 활력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힘든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더 잘해보자”며 청년들을 격려하고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어르신과 청년의 사이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수상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600년 된 느티나무 아래 모이는 일이 늘었습니다. 세대 구분 없이 모여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발전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여가 마을공동체의 소속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행복마을 사람들의 신나는 하루



열정과
노력의 무대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TEL. 044)201-1560~1

발행일 | 2019년 12월



비매품/무료

03060



ISBN 979-11-86183-30-4

※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www.raise.go.kr/contest